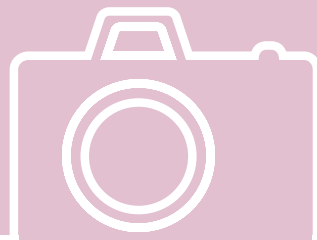


Inside of Photography - 12

사진 작업 프로그램, 어도비 포토샵

글. 강태욱 사진작가 / Studio Workroom K 운영
edelrider@gmail.com



지난 회차에 설명한 원본(RAW) 디지털 이미지의 컨버팅 후 더욱 세밀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진을 좀 한다는 사람은 모두 다 잘 아는 프로그램인 어도비 사의 포토샵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사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가 잘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아는 프로그램이 포토샵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촬영이 끝난 모델이 하는 말이 ‘포토샵 잘 부탁드립니다’일까요. 수정이 아닙니다. ‘포토샵’을 잘 부탁한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만큼 포토샵은 일반인들에게 만능의 작업 툴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섬세한 조명의 컨트롤을 요구했던 클라이언트들도 이제는 ‘대충 촬영하고 포토샵 해 주세요’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포토샵이 요물 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많은 시간과 돈이 보장된다면 되긴 합니다. 그 비용은 천차만 별이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딱 돈값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토샵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사진에 대하여 좀 잘 알 거 같은 광고 회사의 직원들도 대충 사진 몇 개를 보내고는 이리이러하게 “포토샵 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돼지 사진을 보내 주고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추가 설명드립니다. 똥똥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동물 돼지 사진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비유입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사진을 가져와서는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포토샵은 일반인들에게 전가의 보도와 같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제 기억에만 해도 90년대 초반 이미 포토샵은 그래픽 쪽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1990년 V1.0 포토샵이 매킨토시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벌써 30년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어서 대체제가 전무합니다. 아직은 그 어떤 프로그램도 포토샵을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포토샵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상 상상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과 상충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에릭 요한슨’이란 작가일 겁니다. 스웨덴의 사진작가인 에릭 요한슨은 자신의 상상 속 이미지를 포토샵을 활용하여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봤을 때만 해도 ‘아.. 합성 잘하네’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쪽 분야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가(사실 사진가라 해야 할지, 그래픽 디자이너라 해야 할지 이미지 크리에이터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상상력이 풍부할 뿐 아니라 그 상상 속의 이미지를 사진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의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런 작업도 가능하구나. 상상력이 좋구나. 포토샵을 잘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QR 코드로 들어가시면 작가의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에릭 요한슨 이후 이런 작가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마도 일반 대중들에게 더욱더 포토샵은 만능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포토샵의 많은 기능을 자유자재 다재다능하게 사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리 많은 기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 사진 작업에서는 배경을 부드럽게 해 주거나, 인물 얼굴 라인이나 신체 라인을 잡아 주고, 피부 잡티 제거, 의상의 수정(먼지, 웨입 등)을 작업한 후 전체 톤과 색상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정도 작업은 그리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품 촬영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요즘은 이런저런 합성이 많아서 제품의 경우에는 마스킹을 사용하는 작업의 양이 좀 더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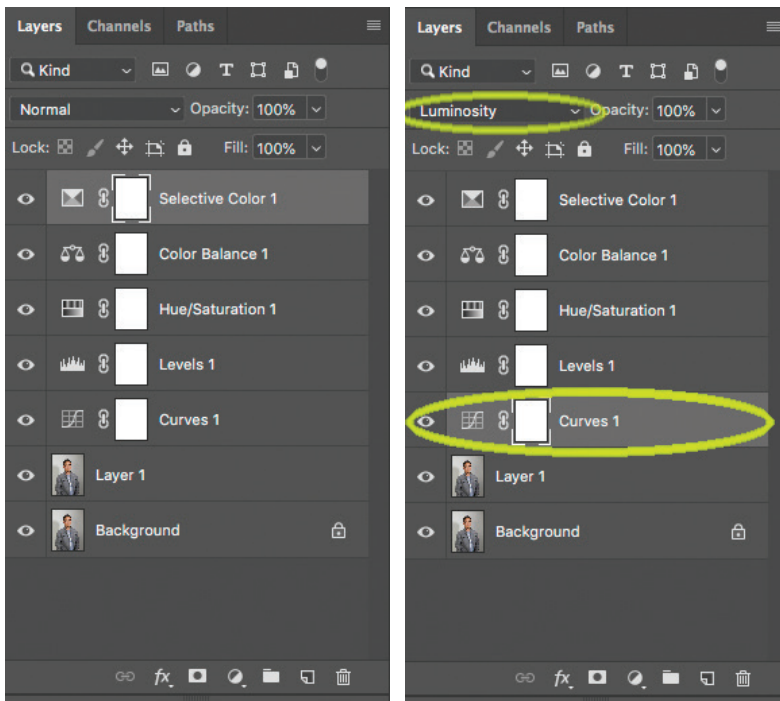
일단 인물 사진의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의 순서는 포토그래퍼마다 각자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제가 보통 작업하는 방식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자신에게 최적화된 방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엔 지난 회에서 설명한 대로 캡처원에서 기본적인 세팅을 잡아 줍니다. 노출, 콘트라스트, 선명도와 커브 곡선 등 RAW 파일에서 조절 가능한 것들을 잡아주고, TIFF 파일로 변환을 해 줍니다.

이미지 출처 : www.erikjo.com



후자는 캡처원에서 작업을 최대한 많이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변환된 파일보다는 RAW 파일에서의 작업이 이미지 퀄리티 손상이 적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토샵이 익숙해진 상태이고, 개인적인 이미지 비교에서 전자와 후자 이미지의 퀄리티가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했기에 캡처원에서는 기본적인 세팅만 잡아주는 작업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 장의 사진을 작업할 때, 톤과 밝기에 큰 차이가 없는 사진의 경우 일괄적으로 모든 조건을 같이 적용하여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 후, 세밀한 조정은 포토샵에서 합니다.



포토샵에서 파일을 열면 조절레이어에서 Curve, Level, Selective Color, Color Balance, Hue/Saturation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좌, 우 사진의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커브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는 특성을 Normal로 잡아 주시고 Curves1 레이어는 Luminosity로 잡아 주시면 화면의 밝기를 조절할 때 색의 변화 없이 밝기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전 캡처원에서 컨버팅한 사진

매번 같은 작업을 진행하므로 action에서 자주 쓰는 작업으로 만들어 단축키를 만들어 뒀습니다. 자주 하는 작업을 하기 전 액션에서 녹화버튼을 눌러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작업을 다 끝낸 후 정지 버튼을 누르고 액션 이름과 단축키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각 조정 레이어를 사진마다 적절하게 조절하여 디테일을 조절해 줍니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각 사진에 맞는 커브 곡선과 색상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피부 정리를 해 줍니다. 피부의 잡티, 티끌을 없애면서 마네킹 같지 않은 질감을 남겨야 합니다. 이 방법은 사진가마다 다양하면서도 어쩌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힐링툴, 블러 필터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게 됩니다

그 후 liquify에서 인물의 얼굴 라인이나 몸매의 교정을 해 줍니다. 리퀴파이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인체 비례에 관한 내용을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얼굴이 만들어지고 어색해집니다. 일부 여성분들의 경우 과도한 이미지 AS 말을 들어야 할지, 왜 이상해지는지 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전 점점 더 매번 중간값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위에 말한 일반인들의 포토샵에 대한 환상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피부 수정 전



피부 수정 후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에 Sharpen 필터를 적용해 줍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카메라에서는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DSLR의 경우 중간의 미러에서 빛이 꺾이면서 초점면이 정확하다고는 하여도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렌즈와 바디의 조절을 거쳐도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틀어지는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차이에 따른 선명도를 조절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Filter-Sharp-Unsharp Mask에서 수치를 조절하여 부드러운 면서도 자연스럽게 선명도를 올려 줍니다.

최근 나온 미러리스 카메라 중 소니 알파7을 사용하여 촬영한 적이 있는데 이 카메라는 오히려 너무 선명하게 초점이 맞아서 초점면을 부드럽게 해 주기도 했습니다. 캐논 카메라의 경우 예전에 오명으로 유명했던 후핀에 대한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100% 확대를 해 봤을 때 조금 흐린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선명도 조절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나 위에 말한 피부의 부드러움을 작업한 다음 다시 선명도를 조절하게 되면 이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 둘의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완성본

작업을 마치면 레이어를 그대로 살려서 TIFF로 저장해 두고 다시 레이어를 다 합친 다음 JPG로 저장합니다. 예전에는 CMYK/RGB를 따졌는데 점점 그런 것이 필요 없는지 아무거나 보내 달라 해서 요즘은 RGB로 작업하고 보관합니다. TIFF 파일을 남겨두는 이유는 수정이 들어왔을 때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레이어를 다 없애 버리고 JPG만 남겨두었는데, 수정을 해 달라고 할 경우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결과물을 다시 만들어 내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색감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는지 완전히 일치하는 작업을 만들려면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레이어가 다 살아 있는 TIFF 파일은 남겨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 파일은 납품이 끝나고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에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물인 JPG 파일만 남겨두시거나 레이어를 모두 병합한 TIFF 파일을 남겨두시면 어느 정도 용량도 줄어들면서 화질 저하도 없어서 좋겠습니다. 📁